건설경기 불황 여파, 광주 공공 발주 영역으로 번진다

광주송정역 증축 공사업체 선정 난항
지하철 2호선 일부구간 사업자 없어
빛고을 창업스테이션 시공사 자금난

건설 경기 불황 여파가 공기업이나 광역단체의 공공 발주 영역으로 번지고 있다. 건설업계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비용, 자금난 등을 호소하면서, 이미 진행 중인 관급 공사를 중단하거나 신규 공사 참여마저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월부터 3차례 호남고속철도 광주송정역 증축공사 입찰공고를 했지만,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까다로운 입찰 기준과 건설원가 인상 등으로 업체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어려운 건설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철도공단의 무리한 입찰업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1월 26일 첫 입찰에선 참가업체 두 곳 중 한 곳이 실적 부족으로 탈락하면서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3월 14일 두 번째 입찰에선 2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예정 가격 초과로 입찰 문턱을 넘지 못했다.

5월 23일 세번째 공고에는 아예 참가대상자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에서 신청자조차 나타나지 않아 입찰이 취소됐다. 철도공단은 지난 3월까지 공사 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인 4월 공사 시작을 예고했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년으로, 시작부터 공사업체를 찾지 못하면 준공도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다음 입찰에서 사업자를 선정한다 해도 공고에서 개찰까지 기간 등을 고려하면 올해 내 착공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사실적 등 입찰여건이 까다롭고, 건설 상황도 원가 등이 인상돼 업체들이 입찰 참가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철도공단에서도 사전심사 자격을 완화하고. 재공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정역 증축공사는 국비 447억원을 투입해 송정역을 연면적 5700㎡에서 1만900㎡로 넓히고, 낡은 대합실과 승강장,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송정역은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한 2015년 4월부터 기존 광주역을 대신해 호남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좁고 노후화한 시설 등으로 이용객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광주 도심 교통지옥 유발자'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도 전남대학교 후문 앞 도로 등 일부 난공사 구간(공구)의 사업자를 찾지 못해 공사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광역권 최초의 순환선'인 2호선은 1단계 6개, 2단계 8개 등 총 14개 공구로 나뉘는데, 2단계에 포함돼 있는 대표적 난공사 구간인 7공구와 10공구 사업이 최근 4차례나 유찰되면서 공사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2023년 개통 예정이었던 1단계 공사는 이미 공사기간 자체가 3년 정도 늦어졌고, 지난해 12월 공사를 시작한 2단계 구간 역시 지금처럼 공사업체 선정 등이 늦어질 경우 2029년 개통조차 불투명하다.

광주시는 일단 올해 내로 업체가 선정되면 전체 공사 기간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공사 구간 자체가 워낙 난공사 구간인 데다 사업비 증액 등의 변수도 꼽힌다.

창업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빛고을 창업스테이션' 건립 공사도 시공사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계획보다 1년 넘게 개관 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주 시공사를 변경하고 다음 달 초 공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공사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1년 7월 착공한 350억원 규모의 창업스테이션은 애초 지난해 8월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폭설·폭우·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이달 말까지 완공해 하반기부터 창업자를 맞을 예정이었지만, 공사 중단으로 완공은 오는 11월, 개관은 내년 3월께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송정역 증축 공사가 업체 선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정역은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한 2015년 4월부터 광주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좁고 노후화한 시설 등으로 이용객의 불만을 사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신임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제청

대법관 후임 후보로 해남 출신 노경필(60·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제청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63·17기)·이동원(61·17기)·노정희(61·19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 부장판사를 비롯해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 부장판사는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헌법행정조 총괄 재판연구관 등을 지내 재판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부산 출신인 박영재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를 거쳐 행정능력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서울 출신인 이숙연 고법판사도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점 등의 경력을 보면 무난하게 인준 절차를 통과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발생해선 안되는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무난하게 세 후보자에 대해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尹, 국세청장 강민수 국조실 1차장 김종문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새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차관급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는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함께 4대 권력 기관장으로 분류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에 대해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전문가"라며 "세제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기용됐다.

대통령실은 "김 국무1차장은 국무조정실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대통령실 비서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소방청장에는 허석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는 장동언 기상청 차장을 각각 내정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경찰 고위직 호남출신 10%뿐
민주당 양부남 의원 지적

윤석열 정부 들어 승진한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 중 절반 가까이가 영남권 출신인 반면 호남권 출신은 10% 수준에 머물러 지역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고위직 인사에서도 지역 편중 현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안배 균형 인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이 27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경무관 이상 계급으로 승진한 경찰 공무원 84명 중 영남 지역 출신자(출신고교 기준)는 40명(47.6%)을 차지했다.

영남권 세부 지역별로는 대구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1명, 경북 10명, 부산 5명, 울산 1명 순이었다.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은 10명(11.9%)으로 기타 지역인 강원·제주(7명·8.3%)와 함께 하위권에 머물렀다.

지역 쏠림 현상은 최고위직 인사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치안감(29명)과 치안정감(14명)으로 승진한 인물 중 절반(치안감 14명·치안정감 7명)이 영남권 출신으로 파악됐다.

양부남 의원은 "경찰 조직의 사기 진작과 통합을 위해 특정 지역이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안배 균형 인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전남 대표음식, 미쉐린 셰프의 손으로 재탄생
게장·부각 등 이용…서울 미쉐린 가이드 EVETT 레스토랑서 판매

여수의 간장게장, 곡성의 김 부각, 광양의 매실절임, 담양 딸기 고추장 등 전남을 대표하는 음식들이 미쉐린 셰프의 손에서 재탄생해 미식가들의 입과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전남관광재단이 미세린 셰프 조셉 리저우드 〈사진〉와 전남 음식명인들의 협업을 진행해 탄생한 음식의 이름은 '명인 요리'로, 미쉐린 가이드 서울에 등재된 EVETT 레스토랑에서 판매되고 있다.

27일 전남관광재단에 따르면 '명인 요리'는 셰프 조셉이 '한국의 쌈 문화'에 영감을 얻어 간장게장, 부각, 고추장, 매실절임을 사용해 만들었다. 이 요리에는 전남 요리 명인들의 비법과 스토리가 담겨 있다.

EVETT 메뉴개발팀이 여수, 곡성, 나주를 찾아 명인들과 직접 대화하며 '남도 음식이 지니는 가치'와 '수십년동안 전통음식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켜온 스토리', '특별함으로 탄생되는 요리 비법' 등을 배웠다.

'명인 요리'에는 광양 홍쌍리 명인(매실절임), 여수 정선심 명인(간장게장), 담양 기순도 명인(딸기 고추장), 곡성 김혜숙 명인(부각) 등이 참여했다.

출시된 메뉴는 전남의 지도를 그려 넣은 접시에 명인들의 식재료와 원산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접시 아래는 각 식재료와 명인을 소개한 카드를 함께 동봉해 음식에 담긴 의미와 명인들의 가치를 미식가들에게 알리고 남도 음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섬세하게 배려한 점이 특이한 점이다.

이와는 별도로 셰프 조셉은 지난 23~24일 식재료 연구와 신메뉴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해 전남관광재단 기업육성팀과 함께 무안의 갯벌, 신안군의 소금, 바위옷, 구찌뽕으로 만든 전통주 만드는 과정 등을 체험하고 관련 전문가를 만났다.

셰프 조셉 리저우드는 "서남해안에서 나오는 톳, 가사리, 바위옷 등 다양하고 풍부한 수산 식재료로 가득한 한상 차림이 인상적이다"고 말했다.

이번 협업은 전남관광재단이 지난 5월 7일 '2026 UN Tourism 세계미식관광포럼'을 유치하기 위해 셰프 조셉을 유치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진행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

중앙신용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성순덕(360305-2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남구 수박등로48번길 7, 101동 201호(월산동, 월산동라인아파트)

피상속인 망 성순덕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4느단3820호로 신청하여 2024년 6월 26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6월 28일

- 상속인 : 김재남(561129-1XXXXXX) 광주 남구 수박등로48번길 7, 101동 201호(월산동, 월산동 라인아파트)
- 신고기간 : 2024. 6. 28. ~ 2024. 9. 7.
- 채권신고처 : 상속인 김재남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이시형(740224-1XXXXXX)
- 최후주소 :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 1546-13, 102동 104호(교원리, 팔마코이스아파트)

피상속인 망 이시형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4느단3715호로 신청하여 2024년 6월 25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6월 28일

- 상속인 : 1. 서유정(830103-2XXXXXX) 여수시 여서2로 55, 502동 105호 (여서동, 부영5차아파트)
  2. 이우진(120713-3XXXXXX)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 1546-13, 102동 104호(교원리, 팔마코이스아파트)

상속인 2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서유정

- 신고기간 : 2024. 6. 28. ~ 2024. 9. 7.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1. 서유정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오건교(470825-1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동구 밤실로30번길 11, 5동 1501호 (지산동, 삼성아파트)

피상속인 망 오건교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4느단600호로 신청하여 2024년 6월 2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6월 28일

- 상속인 : 1. 정은숙(501212-2XXXXXX) 광주 동구 밤실로30번길 11. 5동 1501호 (지산동, 삼성아파트)
  2. 오정은(791204-2XXXXXX) 서울 중구 다산로 32. 25동 501호 (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
  3. 오유은(810227-2XXXXXX) 서울 중구 다산로 32. 17동 906호 (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
  4. 오영은(850101-2XXXXXX) 서울 중구 다산로 32. 20동 101호 (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
- 신고기간 : 2024. 6. 28. ~ 2024. 9. 7.
- 채권신고장소 : 법무사 이병직 사무소 광주 동구 동명로 110, 110호(지산동, 법조타운)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구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우미종합건설(이하 "당사")은 2024년 6월 27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우미건설 주식회사'가 당사를 흡수합병하여 당사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당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월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상법 제 527조5 제1항에 의거 공고합니다. 그리고 당사의 주식을 소지하고 있는 각 주주 및 질권자는 이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월 이내에 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8일

주식회사 우미종합건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9, 3층 301호 (우산동)
대표이사 박 정 양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하은전기공사(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자연에너지(이하 "을"이라 함)는 2024년 06월 27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에 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 회사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2024년 6월 28일

"갑" 주식회사 하은전기공사
(법인등록번호 : 131311-0193212)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서해로 1217, 1층
대표이사 이 수 형

"을" 주식회사 자연에너지
(법인등록번호 : 200111-0401798)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동계면 귀미로 282-11
사내이사 조 진 숙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2년 光州日報 |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

군산시 수송동 7층 매매

메디컬빌딩
840㎡ 바닥628㎡ 대형건물
약국, 의료기관 4개입주

월 3천4백만원
매가78억
은행 36억5천.보9억4천포함

인수가 32억

010-3646-8700